

죄악을 찬미하며 복침을 꿈꾼다

력사의 비극을 재현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황당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왕 이것을 잊고 스스로 치욕의 수렁에 머리를 들이미는 자들이 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6.25전쟁 70주년》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각종 반공화국행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려 하고 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벌리려 하는 광대놀음에는 인신상륙작전을 비롯한 《주요 전투》들의 재현,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침략군대의 고용병들에 대한 위로연, 《특별전시회》와 예술공연 등 별의별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후배이전도되고 선과 악이 뒤바뀐 반공화국대결광대극들은 가소롭게도 그 무슨 《평화지향》의 간판 밑에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력사와 진실에 대한 과렴치한 외곡이고 모독

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적이다. 도대체 지난 조선전쟁을 놓고 무엇을 《기념》하겠는가. 그런데도 그 치밀리는 범죄를 찬미하는 놀음을 크게 벌리려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과렴치한 자들인가. 앞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뒤에서는 동족제국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정체는 이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루군시상작전

참화를 들춰냈으며 삼천리강도를 초조화한 제국주의 침략세력들의 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치밀리는 범죄를 찬미하는 놀음을 크게 벌리려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과렴치한 자들인가. 앞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뒤에서는 동족제국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정체는 이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루군시상작전

사령부를 돌아치면서 《대북군사적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고아대고 저들의 해군무력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한 사실도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죄악을 찬미하는것은 그런 죄악을 다시금 저지르려 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벌려놓으며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망동을 온 겨레는 용납치 않겠는가.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 각계층 또다시 《싸드》장비를 반입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항의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9일 새벽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또다시 《싸드》장비를 반입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항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싸드》장비반입을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조선의 소성리 《싸드》철폐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싸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싸드》철폐평화회의는 같은 날 서울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드》장비의 추가반입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과 발언문에서 《COVID-19》위기조차 무시하고 또다시 《싸드》배치를 강박한 미국과 그에 굴복하여 장비를 끌어들이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터트리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며 절대로 미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준철히 성토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주광일

그러나 그 식이 장식이라고 그것들은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여러차례의 수술로 갈도 들이매수 없는 말기암환자처럼 누에기투성이가 된 《미래통합당》이 살아보겠다고 또다시 겨역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놀음을 벌리고있지만 그러다가 이미 다 망한 집안의 신세가 달라질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김응철

하나마나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놀음

이런것을 만들어냈다.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새로 창당한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갔던자들이 권력에 환장이 되어 도로 기여들어와 영적 불어가지고 간판만 바꾼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시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한것만 보아도 이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알 수 있다. 똑바른 주의주장이나 리념은 없이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자들이 모여 얼렁뚱땅 빚어낸 《미래통합당》의 일기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하라는 정치는 뒤전에 밀어놓은채 저

들만의 리익을 위해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고 또 당내에서는 매일과 같이 계파싸움을 벌리며 허충세월하는 《미래통합당》을 민심이 단호히 심판한것은 당연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변신하였지만 풍지박산의 위기에 처하였고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어물쩍 만들어 내었다. 돌이켜보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은 보수적역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써먹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은 2010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이번까지 합치면 8차례로서 거의 1년에 한번씩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온셈이라고 한다. 구태여 말한다면 거의 매해 한번씩 의식을 잃고 쇼크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환자들과 같은 신세가 된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으면서 내든 구호가 《쇄신》과 《혁신》, 《젊은 피수혈》 등이었다.

부산단체들 진일보수언론폐간운동에 진입

남조선언론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부산경남주권련대와 부산경남대학생진보련합이 5월 27일 진일보수언론폐간운동에 진입하였다. 이날 《조선일보》 부산지사앞에서 운동선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조선일보》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보도를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으로서 일본의 구유언론과 구유세력에 복무하여왔다고 그들은 까발렸다. 그들은 《조선일보》 청산없이 친일청산도 국민주권선언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친일보수언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들 진행

보도에 의하면 5월 27일 남조선의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제히 전개되었다. 부산의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의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남조선에 있는 친일세력과 함께 전쟁범죄를 지우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세력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위곡, 피해자 명예훼손, 인권침해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구에서도 《가해자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후안무치 미래통합당 규탄한다》, 《죄폐가 재뉴스 조선일보 폐간하라》,

《정의기억연대 지지자》 등의 웨یتی 터져나왔다. 소녀상앞에서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시민모두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면서 일본정부는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주변에 있는 소녀상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문제로 삼는 보수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발언자들은 보수세력의 책동을 통해 성노예문제해결이 지연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남조선의 보수적역당이 21대 《국회》에서 리속이 있는 알맹이들을 차지해보려고 양말질을 부리고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노라면 《그 버릇 개 줄가》라는 격언이 떠올려진다. 최근 민심의 단호한 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이 《상생》과 《협치》를 떠들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자 못해 온갖 란투국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로 만들어놓은 저들의 죄행을 반성이나 하는것처럼 《상생》과 《협치》에 대해 떠드는것을 두고 민심

은 쓴웃음만 지었다. 그들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쏠때도 믿을수 없기때문이었다. 아나나다가 지금 《미래통합당》 패거리들은 《국회》에서 지난 시기

반문정질하는 철없는 세상 난 아이처럼 놀아내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두고 민심은 《지어먹은 마음 사흘갈가, 역시 싸움질에 이골이 난 미래통합당》, 《저밖에 모르는 놀부심보 가진 폐물야당》이라고 분노와 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언론이 그만쯤 버릇을 고치라고 욕도 퍼붓고 심판의 매도 안졌지만 어찌와 달라진게 없는 《미래통합당》이다. 또 달라질수도 없는 보수적역당이요. 또 약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미래통합당》이 갈 곳은 지승의 길밖에 없다. 황금속

황금속

그 태를 개 주랴

저들이 부린 추태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반성도 없이 새 《국회》의 《노란 자위》들을 차지했다며 생떼를 쓰고있다고 한다. 지어는 저들의 구가 성사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울러메기까지 하였다

그 태를 개 주랴

그 태를 개 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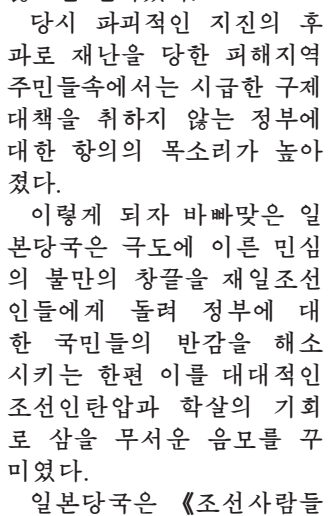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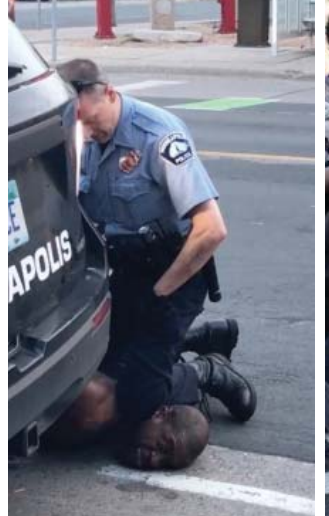
미국전역을 휩쓸고있는 반인종주의 범죄, 300여개 도시로 확대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백인경찰이 무릎으로 46살 난 흑인남성의 목을 짓눌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2부류공민취급을 당하며 갖은 멸시와 천대속에 살아야 하는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아폴리스시에서 백인경찰의 살인행위를 반대하여 시작된 반인종주의시위가 삽시에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3일현재 300여개 도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주변에서는 격노한 시위자들이 《정의도 평화도 없다》, 《숨을 쉴수 없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미국기발을

내리워 불태워버렸다. CNN방송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군중들이 야간통행금지조치를 무시하고 항의행동에 떨쳐나서면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전하였다.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해 폭압에 동원된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쏘아대면서 탄압에 광분하였다. 백악관앞 시위상황을 전하면서 언론들은 시위군중은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탄, 섬광탄 그리고 곤봉과 기마경찰의 말발굽세례를 받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워싱턴상공에 군용직승기가 나타나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군용차량들이 배치되고 도시주변에서는 수많은 정

규군병력이 대기하고있다고 한다. 백악관주변에는 높이 2m 가 넘는 쇠물라리가 설치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시위자수는 이미 9 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미당국자들은 반인종주의 시위를 진압할것을 주지사들에게 강박하면서 방위군을 동원하여 《비천하고 아무 쓸모없는자들》을 멍치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전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당국은 고질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일본의 과거죄악사는 그 한때지나면제거되 조선민족의 원한과 피로 얼룩져있다. 일본범죄를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인 간포대지전재의 끔찍한 참변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도 일제야수들의 극악무도한 조선인 집단학살만행을 고발해주고 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일본의 간포일대에서는 과국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모든것을 파괴하였으며 그로 인한 화재는 순식간에 간포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수많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120여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하지만 력사에 수록된 간포대지전재해는 결코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었다. 이 재난을 악용한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과국적인 지진의 후파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시급한 구제대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자 바빠맞은 일본당국은 극도에 이른 민심의 불만의 창끝을 제일조선인들에게 돌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이를 대대적인 조선인탄압과 학살의 기회로 삼을 무서운 음모를 꾸미었다. 일본당국은 《조선사람들

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학살화하고있다》, 《조선사람들이 무릎에 독약을 쳤다》 등의 터무니없는 루언비어를 내뿜는 한편, 헌병, 경찰 등 무장집단과 민간인들로 무어친 《자경단》을 비롯한 우익단체들을 내몰아 조선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

고 또 다른 조선사람들을 톱으로 자르는 참혹성은 보기에도 끔찍하였다. 죽은 사람의 눈을 도려내는자도 있었다. ... 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일제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2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 간포대지전재 강행된 조선인집단학살만행은 일제의 민족해탈주의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었으며 일본정부의 지시와 지휘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악독한 반인륜적범죄였다.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 일제의 극악무도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간포지방을 조선사람들의 시체로 뒤덮은 살인귀들

고 명령하였다. 일본당국의 반인륜적인 살인지령에 따라 일제야수들은 장총, 일본도, 단도, 낫, 참대창, 곤봉, 쇠갈구리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짐승도 낫을 불할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데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검소스를 만들어놓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연 고교고센(5원 55센)》이라는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고 조선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잔인무도하게 죽이였다. 일제살인귀들은 조선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쇠죽이고 찢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팔다리를 톱으로 켜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인건의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잔인한 수법으로 학살하였다. 간포지방에서 일제의 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한 애들은 조선녀성의 시체도 있었다. 그

잘 알수 있는것처럼 일제는 간포대지전재에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대량학살하였다. 간포지방은 말그대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 백광수

한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간포대지전재 억울한 희생물이 된 조선인영혼들이 오늘도 일본을 절규하며 피의 대가를 거어 받아내라고 웨치고있다. 백광수

백광수



일본의 간포지방에서 잔인하게 학살된 조선사람들